

디폴트옵션 등 활용, 비보장형 수익률 43% ‘보장형의 15배’

퇴직연금 운용 전략

퇴직연금의 63% 보장형에 집중
美·호주 등 주요국 보장형 10% 수준
디폴트옵션·ETF·AI 등 활용으로
퇴직연금 투자 수익률 제고해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 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은행권의 수신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은 저조한 반면, 유가증권 투자가 활성화되며 비보장형 수익률은 호조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수익률이 상승하고 중·장기 투자를 위한 ‘생애주기형 ETF’도 보편화한 만큼, 비보장형 상품 투자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 비보장형 수익률 급등

15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비교공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37개 퇴직연금운용기관의 원리금 비보장형 퇴직연금 1년 수익률(평균)은 42.65%(DB형 20.84% DC형 56.17% 개인형IRP 49.45%)로 집계됐다. 같은기간 원리금 보장형 수익률(2.89%)의 약 14.8배 수준이며, 최근 5년의 비보장형 수익률(9.29%)과 비교해도 약 4.6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내외 유가증권 시장이 활황세를 보이면서 비보장형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



퇴직연금 수익률이 보장형과 비보장형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이 노인 일자리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시스

올렸지만, 비보장형 퇴직연금에 대한 선호도는 여전히 낮다. 2분기 말 기준 전체 퇴직연금 적립액 536조원 가운데 340조원(63.4%)이 보장형 상품에 집중됐다. 가입자가 운용 방식을 선택하는 DC형·IRP에서도 47%가 보장형 상품을 택했다. 반면 미국, 호주 등 주요국 퇴직연금의 보장형 선택률은 10%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퇴직연금의 비보장형 투자비중이 낮은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가입자들이 운용에 어려움을 느껴서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직장인 퇴직연금 인식 조사’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 직장인의 66.4%는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특히 57.1%는 퇴직연금 운용에 관심은 있지만, 운용 방법을 모른다고 답변했다.

◆ 디폴트옵션·ETF 등 활용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이 어렵다면 ‘디폴트옵션’을 활용하라고 제안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해둔 위험도에 따라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사전에 약정한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이 변화하면 운용기관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만큼 운용 난이도도 낮다. 특히 사전에 운용방법을 지정했다더라도 중도 변경도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금융권에서도 디폴트옵션의 수익률 경쟁이 활성화됐고, 비보장형 디폴트옵션의 수익률도 안정적인 수준을 지속 중”이라면서 “특히 각 은행이나 증권사 점포에서도 디폴트옵션 안내를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 상담을 제공하는 만큼, 운용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퇴직연금 운용기관의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를 희망하지만 장기적인 관리가 어렵다면 생애주기형 ETF(지수추종펀드)도 고려할 수 있다. 은행·증권사가 주로 취급하는 생애주기형 ETF는 가입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높은 기대수익률을 추구하고, 은퇴시점이 다가오면 배당형 상품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키워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상품이다. 하나의 상품으로 중·장기 자산운용이 가능한 만큼, 투자 난이도가 낮다.

◆ 퇴직연금도 ‘AI’ 활용

금융권에서 확산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연금 서비스도 퇴직연금 운용을 돕는다. 연령, 소득, 노후 준비 수준과 은퇴 시점 등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최적의 ‘연금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시장변동성 구간에서는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 전략에 주안점을 둔 투자 일임도 가능하다.

조명훈 한국투자증권 연금컨설팅부 부

서장은 최근 메트로신문이 개최한 ‘2026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에서 “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디폴트옵션 등 가입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많아 관리가 어려운 구조다”라며 “초개인화된 AI 연금관리 서비스를 통해 연금관리 편의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인 자산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투자지식이 부족하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희망한다면 내년 상반기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도 고려할 수 있다. DC형에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선택하는 대신 전문기관이 다수 투자자의 적당금을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전문성이 높은 전문가가 대규모 기금을 운용하는 만큼, 가입자의 투자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노·사·정 합의’ 당시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금융기관 개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asj1231@metroseoul.co.kr



metro

“AI시대, 데이터 활용이 경쟁력… 인재육성 적극 지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
인재양성 프로그램 ‘KB AI 랩’ 출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AI 시대에는 모든 경험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이 AI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인재 육성을 아끼지 않고, 임직원 모두가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며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진행된 ‘2026년 상반기 그룹 AI·데이터 혁신 세미나’에서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이 임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이번 세미나는 AI와 함께 일하는 새로운 업무 문화 확산과 그룹 차원의 AI 전환 추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개최됐으

며, 실전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KB BAI 랩(Lab)’도 출범했다.

세미나에서는 KB금융의 AI 전략인 ‘KB 위드(With) AI’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와 데이터를 실제 업무에 적용한 KB금융의 주요 혁신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세미나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전 계열사에 생중계됐다. 임직원을 위한 체험 부스도 운영됐다. 참석자들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업무 혁신 사례로 공유된 ‘KB DAVIS’, ‘AI Dev 센터’ 등을 직접 체험했다.

‘KB DAVIS’는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필요한 데이터를 찾아 분석하고 시각화한 보고자료까지 제공하는 ‘개인화된 AI 데이터 분석 에이전트’다. ‘AI Dev 센터’는 AI 에이전트가 개발 모든 과정

에 참여하는 새로운 통합 개발 환경이다. 개발자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복수의 AI 에이전트가 설계와 코드 작성, 테스트 등을 수행한다. ‘KB BAI 랩’은 그룹 AI 교육체계인 ‘KB AI 아카데미’ 최고 과정(AI Expert)을 수료한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교육생들은 실제 현업 과제를 직접 발굴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수준의 AI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KB금융 관계자는 “‘KB 위드 AI’는 AI를 사람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닌 함께 일하며 더 큰 가치를 만드는 동반자로 활용하는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AI와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통해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철근값 18.6% 급등 주택 분양가 오른다

분상제 적용 건축비 0.77% 상승

중동전쟁으로 건설자재 값이 급등하면서 건축비를 끌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교통부는 15일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m²당 223만 7000원으로 직전 고시(222만 원)에서 0.77% 상승한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함께 민간택지에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다만 공사비 변동은 분양가에 적기 반영하기 위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변동된 경우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는 주요 건설자재 중 하나인 고강도 철근의 가격이 3월 정기 고시 이후 지난 6월 초를 기준으로 18.6% 상승하면서 건축비를 조정 고시하게 됐다.

조정 고시는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정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BNK금융 ‘지역경제 대응’ 자회사 조직개편 나서

부울경 경제연구팀·ESG전략팀 신설
‘AX추진단’ AI기반 업무혁신 본격화

BNK금융그룹이 하반기 경영전략을 실행 중심 조직으로 구체화하고 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자회사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15일 BNK금융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경제 대응 강화 ▲ESG 전략의 지역화 ▲미래금융 대응 등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지역주력산업에 대한 생산적금융공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주 차원에서는 BNK경영연구원 산하에 ‘부울경 경제연구팀’을 신설한다. 부울경 산업과 경제 동향을 심층 분석하는 지역 특화 연구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의 경영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지주사에 ‘부울경 ESG전략팀’을 신설해 ESG 전략과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한다. 지역 현안과 연계한 ESG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ESG 활동을 확대해 지역 상생 금융그룹의 역할을 강화한다.

미래금융 대응 체계도 새롭게 구축한다. 그룹 인공지능전환(AI) 실행을 총괄

하는 ‘AX추진단’을 신설해 AI 기반 업무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또한 디지털자산추진단을 통해 지급결제와 디지털자산 등 금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성장동력도 확보한다.

은행 계열사는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해 지역주력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 각각 ‘산업금융전략팀’을 신설해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산업금융 전략을 수립하고, SMR(소형모듈원전), 방산, 우주항공, 친환경조선 등 지역별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역 밸류체인 기반의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BNK부산은행은 ‘해양금융추진단’을

신설해 해양금융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선박금융과 해양인프라 금융사업 발굴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술평가 기능을 혁신 성장금융단으로 이관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BNK경남은행은 중소기업의 세대교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승계지원팀’을 신설한다. 승계 컨설팅과 금융지원을 연계한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지속성장을 지원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부울경 중심의 연구 역량과 ESG, AX-디지털자산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생산적금융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송진 기자